

# 은퇴설계도 '비대면' 열풍

금융권, 무료 모바일 서비스 앞다퉈 개설... 은퇴 고객 잡기 분주  
광주은행 '퇴직연금 시뮬레이션' 月수령액까지 모바일로 '한눈에'  
NH농협은행·하나·국민은행 등 금융상품 추천·부동산 상담도

# 시중은행들 4개월 '눈치 전쟁' 끝 예금 금리 인하

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예·적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.  
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뒤 4개월 여 만으로 수신금리 인하를 저울질했던 은행들의 '눈치 전쟁'이 끝났다고 풀이된다.  
가장 먼저 금리를 내린 곳은 NH농협은행이었다.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예금금리를 최대 0.25%포인트 내렸다.  
하나은행도 지난 2일 예·적금 상품 18종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다.  
'하나 원큐 정기예금' (만기 1년)의 기본금리가 기존 1.35%에서 1.10%로, 'N플러스 정기예금' (만기 1년 기준) 1.50%에서 1.25%로 내리는 등

정기예금 7종이 이번엔 0.25%포인트 인하됐다.  
적금상품 중에서는 '하나 원큐 적금' (만기 1년)이 1.80%에서 1.50%로, '셀프 기프팅 적금' (만기 1년)이 1.30%에서 1.05%로 조정되는 등 11종이 0.25%포인트 또는 0.30%포인트 내렸다.  
신한은행은 오는 21일부터 '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'과 '신한 주거래 S20통장'의 우대 이율을 연 최고 1.50~1.25%로 변경한다. 저축예금의 기본이율은 연 0.20%에서 0.10%로 0.10%포인트 인하한다.  
IBK기업은행은 'IBK플러스저축예금' 금액에 따라 연 0.10~0.90%로 적용하던 금리를 지난 달 21일부터 0.10~0.70%로, 최대 0.20%포인트 낮

쳤다. 'IBK플러스기업자유예금'의 금리는 0.10%포인트씩 내렸다.  
우리은행은 지난 달 10일부터 'WON 예금'과 '위비정기예금' 금리를 내렸다.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.50~0.95%로 제공하던 WON 예금 금리는 0.50~0.87%로 낮췄다. 위비정기예금 기본금리는 1.40%에서 1.10%로 0.30%포인트 내렸다.  
KB국민은행도 '국민수퍼정기예금 단위기간금리연동형' (1~6개월) 상품 금리를 0.70~1.10%에서 0.60~1.00%로, 'KB국민UP정기예금' 상품 금리를 1.35~1.50%에서 연 1.10~1.30%로 낮췄다.  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자산운용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도 '클릭' 몇 번으로 무료 은퇴자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은행 모바일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.

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온라인·모바일 등을 통해 은퇴자산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각사가 운영하는 이 '비대면' 서비스는 급여 정보와 은퇴시기 등을 입력하면 연금 수령 예상액과 맞춤형 상품 정보까지 받아 볼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.

광주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해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위해 '퇴직연금교육시스템'을 개설했다.

이곳에서는 은퇴자산 설계에 대한 도움을 받고 퇴직연금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최근에는 '모바일 학습과정'이 신설돼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퇴직연금(IRP) 등 법정교육을 스마트폰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. 은퇴 뒤 받을 연금이 궁금하면 광주은행 '퇴직연금 시뮬레이션'을 이용하면 된다. 성별과 나이, 은퇴예상연령, 예상기대수령, 월급여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은퇴 때 받을 퇴직연금, 국민연금, 개인연금 등 5단계에 걸쳐 연금정보를 얻을 수 있다.

NH농협은행도 비슷한 형태의 '은퇴설계 자가진단' 서비스 '올백(A11100 플랜)'을 제공하고 있다. 먼저 기본정보로 진단한 은퇴자산을 살펴본 뒤 농협은행 은퇴설계 전문가 '올백플래너'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. '올백플랜'은 자산관리 컨설팅→양도·상속·증여 등 세무상담→부동산 상담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. '내 삶의 올백플랜'에서는 은퇴준비 관련 금융정보와 귀농귀촌 안내 등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.

농협은행은 투자기간과 투자금액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펀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'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'도 운영하고 있다.

하나은행은 표준설계와 간편설계로 나뉜 '은퇴설계 계산기'를 마련했다. 은퇴에 필요한 자금과 준비자금, 설계과정을 단독설계와 부부설계로 분리해 도출할 수 있다. 30초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'간편설계'에서는 몇 번의 클릭으로 은퇴 필요자금, 준비자금, 여유·부족자금을 알아보고 '나의 은퇴준비율'과 부족금액, 추가 거치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.

국민은행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'자산관리샵'을 운영하고 있고 신한은행 '미래설계포유', 우리은행 '시니어플러스', 기업은행 'IBK은퇴설계 연금모아' 등도 관련 서비스를 구축했다.  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## 광주은행, 비대면 외환서비스 확대 23일부터 영업 시간 외에도 가능

광주은행이 오는 23일부터 비대면채널 외환예금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.  
5일 광주은행은 외화예금 비대면채널 외환 서비스를 영업 시간 외인 오후 6시~익일 오전 9시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.  
외화예금 신규 가입·해지·입금·출금 등 서비스가 해당하며, 비대면채널 서비스는 인터넷·스마트·모바일뱅킹 등이 있다.  
이전까지는 영업시간 외에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외화예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. 이번에 확대되는 영업시간에는 미화 1만 달러 이하 금액만 취급할 수 있다. 이외 외화 환전·송금·국내이체·거래외국환은행지정 이용시간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.  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 
찾아가는  
소상공인  
금융지원  
서비스

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(본부장 서욱원·오른쪽)는 5일 목포2호광장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상담창구를 운영했다.  
(농협은행 전남본부 제공)

##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신협, 무이자 신용대출

신협중앙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'무이자 신용대출'을 지원한다.  
신협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▲ 무이자 신용대출 지원 ▲ 기존 담보대출 이차지원 ▲ 공제료 납입유예 ▲ 약관대출 이차 납입유예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.  
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1000만 원 이내로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한다. 대출금리 4%인 '신협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' 가입자는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이자를 전액 지원 받게 된다.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1.5%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. 최초 대출금액 2억원 이내의 담보대출 이용자가 대상으로, 대출 잔여기간(최장 6개월) 동안 지원한다.  
코로나19 확산 피해자는 신협 공제료와 약관대출 이차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.  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##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돕는다

농협 전남본부, 상담창구 개설  
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가 지역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창구를 개설했다.  
전남영업본부는 5일 목포 동부시장 인근 목포2호광장지점에 본부인력을 투입해 소상공인 피해 상담을 지원했다고 이날 밝혔다.  
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지난 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한 뒤 전남신보 보증을 통해 우선적으로 저리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.  
이번 특별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전남신보와 연계, 신속한 심사를 통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침이다.  
전남본부는 농협은행 전남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.  
서욱원 본부장은 "다른 지역 피해 현황을 감안해 금융지원 방문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"고 말했다.  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손해보험협회

고의사고! 허위입원! 허위청구! 과잉진료! 확대수리

#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

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!

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,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. 보험사기, 반드시 적발됩니다.

MERITZ 메리츠화재 | 한화손해보험 | 롯데손해보험 | MG손해보험 | Heungkuk Fire & Marine Insurance | 삼성화재 | 현대해상 | KB손해보험 | 동부화재 | KOREAN | SGI서울보증 | AXA | AIG | NH농협손해보험